

삼성·LG, 'CES혁신상' 석권 반도체·모바일 등 53개 수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등 29개 '갤럭시 버즈3 프로' 최고혁신상
LG전자 AI·생활가전 등 24개 '올레드 TV' 13년 연속 혁신상

국내 전자업계 양대산맥인 삼성·LG 전자가 올해도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를 앞두고 발표된 혁신상을 대거 휩쓸었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지난 14일(현지시간)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을 발표했다.

◆삼성 29개 혁신상 휩쓸어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6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5개, 반도체 3개, 하만 1개 등 총 29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 3개를 수상했으며 2025년형 TV, 모니터 등 신제품과 서비스로 13개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냉장고에 보관된 식재료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을 포함한 2025년형 가전 신제품과 서비스로 4개 혁신상을 수상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사운드와 적응형 소음 제어 최적화가 적용된 '갤럭시 버즈3 프로'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고 '갤럭시 AI',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갤럭시 워치7'로 4개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 수상 제품 이미지(왼쪽하단부터 갤럭시 버즈3 프로, 엑시노스 W1000, LPDDR 5X, 갤럭시 AI,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워치7 갤럭시 탭 S10). /삼성전자



3년 연속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LG 올레드 TV'. /LG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는 'LPDDR5X', '엑시노스 W1000'과 'ALoP(All Lenses on Prism)' 이미지 센서 솔루션 총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하만 인터내셔널은 'JBL 투어 프로3' 무선 이어폰으로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SDI는 처음으로 CES에 제품을 출품해 배터리 사업 부문별 대표 제품들이 모두 수상에 성공했다. 수상 제품은 'PRiMX680-EV', 'PRiMX680 Module+', 'SBB(Samsung Battery Box) 1.5', 'PRiMX50U-Power' 등 4개 제품이다.

◆LG, 3년 연속 CES 최고 혁신상 수상

LG전자는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 AI, 생활가전, 게이밍, 컴퓨터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루 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 올레드 TV는 영상디스플레이와 화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 총 6개 혁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는 3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첫 출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1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다.

LG전자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web)OS'도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AI홈 허브 'LG 씽큐 온'도 CES 혁신상을 받았다. AI홈의 '두뇌' 역할을 하는 LG 씽큐 온은 집안 가전과 IoT 기기들을 24시간 내내 연결 상태로 상시 유지하는 핵심 디바이스다. '이동형 AI홈 허브(Q9)'는 인공지능과 스마트홈 부문에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Q9은 음성·음향·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 센싱 능력을 갖췄다.

LG이노텍은 차량 조명모듈 '넥슬라이드 A+'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넥슬라이드 A+'는 LG이노텍의 차량 조명 전문 브랜드인 넥슬라이드 시리즈 제품 중 하나로, LG이노텍 고유의 면광원 기술을 적용해 별도 부품 없이 모듈 하나만으로 밝고 고른 빛을 내는 것이 강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韓-페루 방위산업 협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세사르 베나비데스 페루 시마조선소 소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잠수함 공동개발 MOU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HD현대, '팀 코리아' 최전선

시마조선소 잠수함 공동개발 MOU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시마조선소 현대화와 페루 조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등 페루 정부 및 해군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후속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 원 규모의 합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합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합정 수주는 국방부, 대한민국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한국 대사관, 코트라(KOTRA)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가 돼 거둔 성과로 주목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세사르 베나비데스(Cesar Augusto BE NAVIDES Iraola) 시마조선소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는 페루 해군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실질적 현지화와 산업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시마조선소 현대화와 페루 조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등 페루 정부 및 해군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후속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 원 규모의 합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합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합정 수주는 국방부, 대한민국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한국 대사관, 코트라(KOTRA)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가 돼 거둔 성과로 주목 받았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중남미에 생산 거점이 될 페루의 합정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이어나가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엔솔,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로봇산업 기술협력 등 협업 추진

LG에너지솔루션이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글로벌 로봇 산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실리콘벨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비 플러스',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 카티' 등 베어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2170)를 단독 공급하고, 향후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Empower Every Possibility)'라는 기업 비전을 발표하면서 "로봇과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Non-EV 산업 영역으로 제품 및 고객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 계약 및 협업으로 신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영역으로의 사업적 포트폴리오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어로보틱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가 지난 2017년 미국 실리

콘벨리에서 창업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글로벌 최초로 서빙로봇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100% 자율주행 및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베어로보틱스는 이번 배터리 공급 계약 및 기술 협력을 계기로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양사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STX, 차륜형 장갑차 '백호' 수출

페루에 백호 30대 공급 예정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K-방산'의 세계화에 적극 힘쓰고 있다.

STX는 지난 15일 페루에 국산 차륜형 장갑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계약은 STX가 지난 5년간 페루에서 공들여 추진한 프로젝트로 국산 전투장갑차의 중남미 최초 진출 사례다.

특히 이번 방산 계약은 페루 AP EC에서 진행된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되며 양국 대통령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STX는 현대로템의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30대를 페루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STX는 K808 장갑차뿐만 아니라 군사용 차량, 순찰차, 앰블런스 차량 등 다양한 군사용 차량을 현지에서 조립·생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TX는 페루 육군의 군용 및 특수차량 조달에서 우선 공

급자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3년부터 페루 리마에 지사를 두고 지난 10여년간 약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해군 경비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STX의 종합상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결과이다. STX는 이번 육군 장갑차 사업을 시작으로 중남미 방산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으며 국내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향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TX 관계자는 "본 계약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 리마무역관, 주페루대한민국 대사관 등 정부 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라며 "STX가 페루 육군조병장으로부터 후속 주문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차량을 조달한다는 목표도 K방산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휘센 뷰 사계절 에어컨' 출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적용

LG전자가 AI(공감지능) 기술로 냉방, 제습은 물론 온풍까지 이용하는 스탠드형 올인원 에어컨 '휘센 뷰 사계절 에어컨(사진)'을 18일 출시한다.

LG전자의 차별화된 핵심부품인 듀

얼 인버터 컴프레서로 냉매를 압축·순환시켜 따뜻한 바람을 만드는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했다. 전기로 열풍을 만드는 기존 히터 방식 대비 이용자의 전기로 부담도 줄여 준다. 환절기뿐 아니라 실외 온도가 영하 10℃ 수준으로 떨어져도 5단계의 일반 온풍과 파

워 온풍이 가능하다.

아울러 'AI 스마트케어' 기능을 통해 따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도 LG 씽큐(Thin Q) 앱에서 에어컨과 가구의 위치를 설정하면 AI가 공간을 분석해 최적의 바람을 내보낸다.

/구남영 기자

